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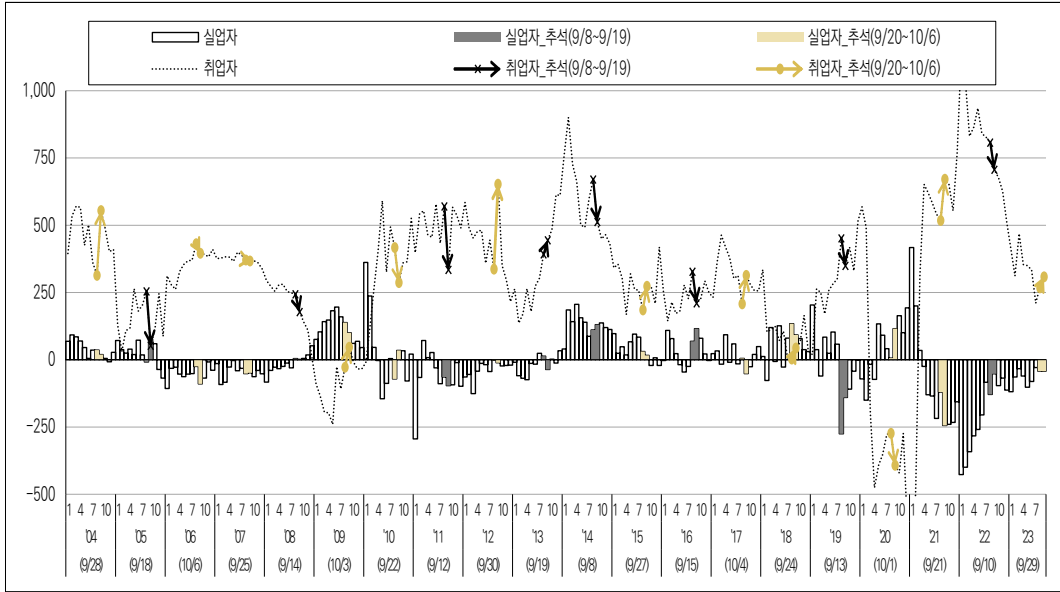
명절 대목과 고용

-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음식 장만이나 선물 준비 등으로 경기가 활발해지는 대목이 발생함. 그러나 음력(1월 1일, 8월 15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명절일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 대목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몫을 분리해서 파악하기 어려움.
 - 본고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기준시점(reference time)이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 7일간이라는 점¹⁾을 활용하여 조사기준시점에 명절 대목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해 고용량 변화를 살펴보고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음.
 - 명절 대목과 조사기준시점의 차이를 통해서 고용변화를 살펴본 것으로, 고용이 감소한 것은 대목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차에 따른 기저영향으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추석은 지난 20년간(2004~2023년) 양력 기준으로 9월 8일에서 10월 6일 사이에 위치하였음. 추석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9월 조사기준시점과 일치하거나 이전에 명절을 치러 대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며(9월 8일에서 9월 19일), 이후에 추석이 위치할 경우, 명절 대목으로 인한 고용증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추석이 9월 20일 이후에 위치한 연도(그림 1에서 금색 선과 ○)에는 2010년, 2020년을 제외하고 9월 취업자 증가폭이 8월에 비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30만 명 이상 증가폭이 확대된 해도 있으나 대체로 5만~10만 명가량의 증가폭 확대가 나타났음.
 - 반대로, 추석이 9월 19일까지 위치한 연도(그림 1에서 검은색 선과 ×)에는 9월 취업자 증가폭이 8월에 비해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9월 15일 이전에 추석이 위치한 해에는 더 큰 폭으로 둔화하고 9월 15일과 추석이 비슷하게 위치한 해에는 둔화폭이 작게 발생함.
 - 반면, 실업자 증감 변화(9월 20일 이후 회색 바, 9월 19일 이전 금색 바)는 추석 명절이 위치한 날짜와 상관없이 발생하여 대목에 따른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1) 만약 조사기준시점(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 7일) 내 공휴일이 3일 이상 연속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주를 조사기준시점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1] 추석 대목과 전년동월대비 8~9월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증감(원계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 () 안은 당시 추석에 해당하는 날짜(양력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설날은 지난 20년간 양력 기준으로 1월 22일에서 2월 19일 사이에 위치하였음. 설날이 1월 31일까지 위치한 경우 설날 대목에 따른 고용증가가 반영될 수 있지만, 2월 1일 이후에 설날이 위치할 경우 대목 현상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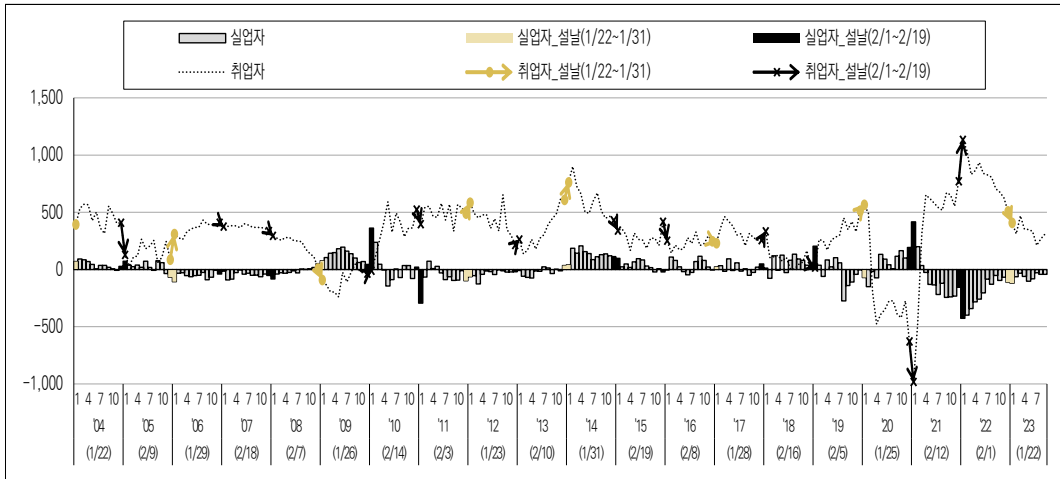
- 설날이 1월 31일 이전에 위치한 연도(그림 2에서 금색 선과 ○)에는 12월에 비해서 1월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해가 추석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확대되는 폭도 추석보다는 작게 나타남.
- 설날이 2월 1일에 위치해 설날 대목이 1월 고용동향에 반영되기 어려웠던 연도(그림 2에서 검은 선과 ×)에는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추석에 비해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설날 대목과 관련된 실업자 증가폭은 추석과 마찬가지로 대목 여부와 상관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 계절조정 기준으로 추석 대목의 고용변화(전월대비 9월 취업자 증감)를 살펴보면, 취업자의 증가하고 감소하는 모습은 원자료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증감폭의 변동은 원자료보다 작게 나타남.

- 설날 대목의 고용변화(전월대비 1월 취업자 증감) 역시 계절조정 기준으로 반영되지 않음.

[그림 2] 설날 대목과 전년동월대비 1~2월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증감(원계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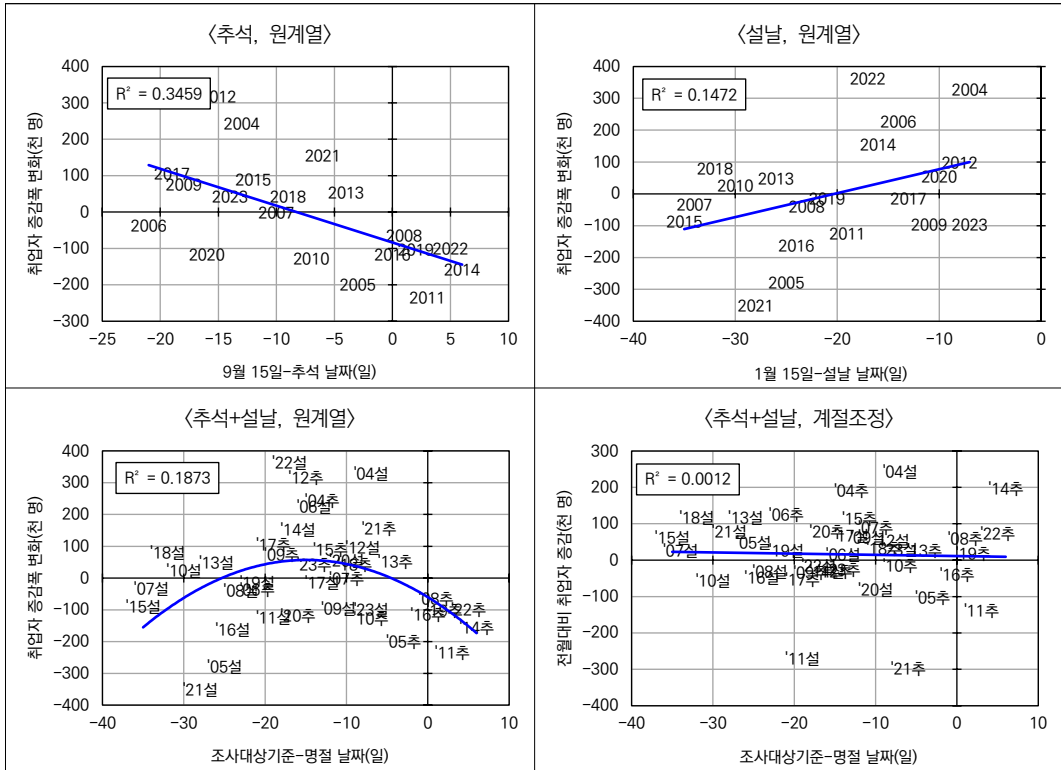


주: () 안은 당시 설날에 해당하는 날짜(양력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명절 대목 발생 시기와 조사기준시점(설날-1월 15일, 추석-9월 15일)의 차이에 따른 고용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산포도(그림 3)와 추세선을 그려 함께 살펴보았음.
 - 추석은 조사기준시점(9월 15일)에 가까워지거나 이전에 위치하게 되면 고용이 감소하고, 반대로 조사기준시점 이후 추석이 위치할수록 고용이 증가하면서 명절과 조사기준시점 차이와 고용의 관계가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설날은 조사기준시점(1월 15일)과 멀어질수록 설날의 대목효과가 감소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추석보다 회귀계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추석보다는 대목효과가 낮아 보이는 것으로 보임.
 - 설날과 추석의 대목효과를 합쳐서 살펴보면, 명절 대목이 조사기준시점에 있으면 고용이 증가하고 나머지 조사기준시점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질수록 고용이 감소하는 역U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조사기준시점과 명절이 10일에서 20일 차이나는 시기(추석의 경우 9월 25일~10월 5일, 설날의 경우 1월 25일~2월 4일)에 고용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음.
- 계절조정 기준으로 설날과 추석을 합쳐서 살펴보게 되면 회귀계수가 0에 가까워 대목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시계열 내 존재하는 계절요인, 명절로 인해 나타나는 변동을 계절조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추출, 제거하여 관찰할 수 없지만, 원계열 자료에서의 고용변화는 명절 대목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원계열에서의 값은 전년동월대비 8월 취업자 증감과 9월 취업자 증감의 차로 일종의 이중 차분을 통해 계산된 값으로, 전년도에 추석 대목이 조사기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기저효과로도 해석이 가능함.

[그림 3] 조사기준시점과 명절날짜의 차이에 따른 고용변화



주: 추석 - 원계열은 전년동월대비 9월 증감과 8월 증감을 뺀 값을 의미하며, 계절조정은 8월 대비 9월 취업자 증감을 의미함.
 설날 - 원계열은 전년동월대비 1월 증감과 12월 증감을 뺀 값을 의미하며, 계절조정은 8월 대비 1월 취업자 증감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추석과 조사기준시점(9월 15일)이 5일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던 연도의 지위별, 직종별, 성별, 업종별 변화를 살펴보았음.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던 시기에는 지위별로 일용직이나 임시직이 주로 증가했으며,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 고용이 증가하였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증가하였으며, 실제 명절에서 대목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업종인 판매업과 운수창고업, 도소매업은 고용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반대로 8~9월 고용동향 변화에 추석대목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고용이 감소한 연도를

살펴보면 증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임시직, 단순노무직, 제조업, 건설업에서 고용이 감소하였음.

- 지난 20년간(직종, 업종은 19년간) 전체 고용변화와 부문별 고용변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일용직과 단순노무직, 제조업, 건설업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

〈표 1〉 추석 대목과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8~9월 취업자 증감 차이(원계절)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8~9월 취업자 증감 차이)

| 추석 날짜 (양력) | 차이 (9월 15일) | 전체 증감폭 | 지위별 증감폭 | | 직종별 증감폭 | | 업종별 증감폭 | | | | | 여성 |
|---------------|-------------------|-----------|---------|------|---------|-----------|---------|------|------|----------|----------|------|
| | | | 일용직 | 임시직 | 판매직 | 단순 노무직 | 제조업 | 건설업 | 도소매 | 운수 창고 | 사업 관리 | |
| 2004.09.28 | -13 | 241 | 181 | 105 | | | | | | | | 160 |
| 2005.09.18 | -3 | -201 | -171 | -44 | 25 | -135 | -31 | -83 | -4 | -21 | -8 | -86 |
| 2006.10.06 | -21 | -37 | 41 | -49 | -32 | 46 | -13 | 25 | 1 | 4 | 0 | -34 |
| 2007.09.25 | -10 | -3 | 4 | -27 | 8 | -29 | 28 | 7 | -32 | -28 | -2 | -1 |
| 2008.09.14 | 1 | -67 | -21 | -17 | -36 | 19 | -20 | -16 | -13 | 21 | 5 | -5 |
| 2009.10.03 | -18 | 74 | 7 | -11 | 28 | -46 | 21 | 29 | 0 | 7 | -11 | -24 |
| 2010.09.22 | -7 | -130 | -36 | -46 | -32 | 31 | -45 | -60 | -41 | 9 | 4 | -76 |
| 2011.09.12 | 3 | -235 | -211 | 27 | -7 | -141 | -23 | -50 | 0 | -11 | -55 | -143 |
| 2012.09.30 | -15 | 316 | 218 | 10 | -4 | 161 | 56 | 94 | -13 | 8 | 42 | 194 |
| 2013.09.19 | -4 | 52 | 57 | 51 | 43 | -8 | 22 | 18 | 51 | -14 | 25 | -1 |
| 2014.09.08 | 7 | -158 | -12 | -39 | -8 | -65 | -46 | -17 | -11 | 8 | -38 | -76 |
| 2015.09.27 | -12 | 89 | -50 | 28 | 20 | 59 | 5 | -10 | 29 | -6 | 52 | 73 |
| 2016.09.15 | 0 | -118 | -23 | -114 | -48 | -40 | 3 | -31 | -53 | 11 | -39 | -91 |
| 2017.10.04 | -19 | 106 | 85 | 60 | 6 | 83 | -8 | 74 | 22 | 5 | -8 | 58 |
| 2018.09.24 | -9 | 42 | 29 | -3 | 33 | -34 | 64 | -8 | 23 | 0 | -12 | 4 |
| 2019.09.13 | 2 | -103 | -137 | -7 | -29 | -72 | -87 | -65 | -11 | 6 | 11 | -4 |
| 2020.10.01 | -16 | -118 | 36 | 15 | -34 | 61 | -18 | 61 | -31 | -34 | 16 | -105 |
| 2021.09.21 | -6 | 153 | -32 | 28 | 6 | -6 | 39 | -66 | -8 | 56 | 4 | 100 |
| 2022.09.10 | 5 | -101 | -16 | -41 | -5 | -62 | -13 | 11 | -11 | -49 | -11 | -36 |
| 2023.09.29 | -14 | 41 | 81 | -16 | -1 | 36 | -2 | 37 | 53 | 18 | -9 | -21 |
| 전체 증감폭과의 상관관계 | | | 0.79 | 0.57 | 0.38 | 0.71 | 0.72 | 0.58 | 0.36 | 0.38 | 0.61 | 0.94 |

주 : 전체, 지위별, 직종별, 성별, 업종별 전년동월대비 9월 취업자 증감값(9_yoy)과 8월 취업자 증감값(8_yoy)의 차이를 의미함.
2005~2012년은 9차 산업분류, 6차 직업분류, 2013~2023년은 10차 산업분류, 7차 직업분류 적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설날이 1월에 위치하여 조사대상기준에 대목 영향을 받고 취업자 증가폭도 확대된 해의 각 부문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일용직과 임시직이 비슷한 흐름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대목 기간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상관계수도 높게 나타남.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추석 대목에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와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을 일용직+단순노무직의 고용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설날은 추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목 기간에 도소매업 취업자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 **KLI**

〈표 2〉 설날 대목과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12~1월 취업자 증감 차이(원계절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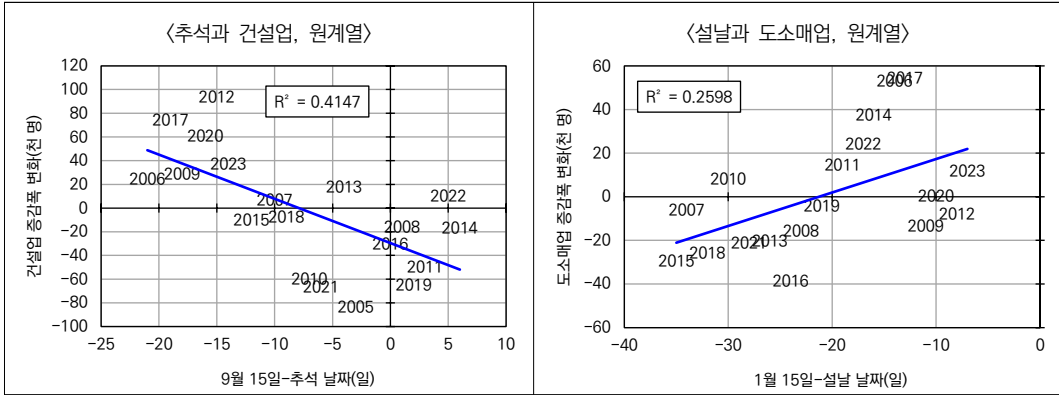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12~1월 취업자 증감 차이)

| 설날 날짜 (양력) | 차이 (1월 15일) | 전체 증감폭 | 지위별 증감폭 | | 직종별 증감폭 | | 업종별 증감폭 | | | | | 여성 | |
|---------------|-------------------|-----------|---------|------|---------|-----------|---------|------|------|----------|----------|----|------|
| | | | 일용직 | 임시직 | 판매직 | 단순 노무직 | 제조업 | 건설업 | 도소매 | 운수 창고 | 사업 관리 | | |
| 2004.01.22 | -7 | 326 | 298 | 4 | | | | | | | | | 272 |
| 2005.02.09 | -25 | -281 | -88 | -89 | | | | | | | | | -191 |
| 2006.01.29 | -14 | 225 | 159 | 15 | 13 | 113 | -7 | 96 | 53 | 3 | -22 | | 168 |
| 2007.02.18 | -34 | -34 | -33 | 63 | -8 | -31 | 30 | 2 | -6 | -17 | 17 | | -47 |
| 2008.02.07 | -23 | -42 | -29 | -3 | -73 | -70 | -14 | -5 | -16 | 1 | -47 | | -24 |
| 2009.01.26 | -11 | -99 | 9 | -44 | 62 | 87 | 4 | 5 | -13 | 31 | 9 | | -71 |
| 2010.02.14 | -30 | 24 | -56 | -110 | 25 | -169 | 48 | -24 | 8 | -4 | 53 | | 53 |
| 2011.02.03 | -19 | -127 | -3 | 66 | 9 | 56 | -57 | -11 | 15 | 0 | -37 | | -76 |
| 2012.01.23 | -8 | 95 | -19 | 24 | 6 | 9 | -29 | -19 | -8 | 6 | 40 | | 61 |
| 2013.02.10 | -26 | 47 | 37 | 37 | -31 | 15 | 42 | 35 | -20 | -7 | -14 | | -38 |
| 2014.01.31 | -16 | 153 | 51 | -27 | 28 | 55 | 1 | 11 | 38 | -1 | 41 | | 80 |
| 2015.02.19 | -35 | -90 | 3 | 8 | -24 | -1 | -3 | -13 | -29 | -6 | -21 | | -13 |
| 2016.02.08 | -24 | -164 | -5 | -92 | -5 | -67 | -1 | 6 | -39 | 32 | -36 | | -96 |
| 2017.01.28 | -13 | -17 | -6 | -71 | -16 | -29 | -50 | 7 | 54 | -29 | 0 | | 10 |
| 2018.02.16 | -32 | 78 | -19 | 8 | 33 | -52 | 29 | 16 | -26 | 20 | 7 | | -15 |
| 2019.02.05 | -21 | -15 | -26 | 44 | 8 | 61 | -43 | -53 | -4 | -23 | 13 | | 50 |
| 2020.01.25 | -10 | 53 | 69 | -66 | -14 | -8 | 23 | 33 | 1 | 23 | 2 | | 32 |
| 2021.02.12 | -28 | -354 | -62 | -212 | -37 | -201 | 64 | -42 | -21 | 0 | -11 | | -240 |
| 2022.02.01 | -17 | 362 | 14 | 258 | 22 | 173 | 29 | 60 | 24 | -6 | 1 | | 217 |
| 2023.01.22 | -7 | -99 | 6 | -29 | -2 | -1 | -121 | -26 | 12 | -37 | 12 | | -43 |
| 전체 증감폭과의 상관관계 | | | 0.67 | 0.65 | 0.36 | 0.65 | 0.08 | 0.69 | 0.52 | -0.03 | 0.30 | | 0.96 |

주 : 전체, 지위별, 직종별, 성별, 업종별 전년동월대비 1월 취업자 증감값(1_yoy)과 전년도 12월 취업자 증감값(12_yoy)의 차이를 의미함. 2006~2012년은 9차 산업분류, 6차 직업분류, 2013~2023년은 10차 산업분류, 7차 직업분류 적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4] 조사기준시점과 명절날짜의 차이에 따른 업종별 고용변화



주, 자료 : [그림 3]과 동일.

(임용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